2021년 5월 2일 제 351호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주 일 예 배 Worship Service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선교기도	5월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미경(태국)
찬 양*	빈 들에 마른 풀같이(찬 188)	다같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인도		고동식
봉 헌*	요게벳의 노래	김은희
말씀교독	마가복음 10:13-16	다같이
특별찬양	날 사랑하심	샤마임찬양대
말씀선포	“순전한 믿음”	양명철
찬양과결단*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찬 455)	다같이
축 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알 립 니 다 News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어린이 주일 입니다. 장년예배 시간에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다음주(5/9) 예배 후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가족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현장예배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김희석)
4. 5월 한 달 동안 한울림교회 비젼과 예배당 건축 완공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가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안내데스크에 있는 릴레이 금식기도표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예배에 못오시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양명철 목사에게 연락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오늘 마감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목자목녀들은 필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정주애)
5. QT책 5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박순정)
6. 예배당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전기공사의 사무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안전과 과정이 신속히 진행되어 속히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당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축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7.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 회 자 칼 럼 Pastor’s column

5월, 가정의 회복을 기대하며 - 양명철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어느 날 A 집사님께서 일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차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날 따라 차가 막히고 경적소리가 자주 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일처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급한 일이기에 전화를 끊고 Zoom으로 회사 팀원들과 Meeting을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는 차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그런지, 일을 처리하는 내내, 옆에 있는 남편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잠시 후 갑작스런 Zoom Meeting을 마치고 남편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당신은 내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운전을 왜 이렇게 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핸드폰에 버튼을 잘못 눌러 Meeting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며 A 집사님은 핸드폰에 있는 종료버튼을 연달아 눌러 Meeting에서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한 나머지, 남편에게 화를 내기보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자책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울상을 지으며 “혹시 내가 소리지르는 걸 팀원들이 다 들었을까…?” 물어기도 했습니다. 혼자 이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뜩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작 나의 안 좋은 감정을 받아 준 것은 남편인데, 집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시선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깨닫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 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시작 될 때, 우리는 존중과 배려로 그 관계를 다져 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친밀해지면서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예의를 잃어버려 좋은 관계를 망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친분을 맺을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존중하고 배려하며 조심해야하는 사람들은 나의 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특별히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상하리만치 가족에게는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쉽게 짜증을 내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칼럼을 쓰며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